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세번째)과 구청장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0년 서울특별시 시무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민생 살리기 ‘공정한 출발선’서 시작”

서울시 이색 시무식으로 경자년 시작

서울시가 이색 시무식으로 서울시정 새해 화두인 ‘공정한 출발선’에 대한 실행 각오를 다지며 2020년 경자년을 시작했다.

시장부터 직원까지 각자가 내 놓은 책을 서로에게 추천해 읽고 싶은 책을 현장에서 교환하는 ‘공유책방’을 열었고, 박원순 시장은 ‘Ted 강연’ 방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합합가수 치타는 청년의 애환과 서울시정의 다양한

가치를 가사에 담은 랩 공연을 선보였다.

서울시는 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시의회사무처, 투자·출연기관 등의 직원 38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은 공정한 출발선의 보장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모든 재원을 활용해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주요 고위공무원들이 소방재난본부 임직원과 신년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 소방재난본부 시무식. /경기도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무”

경기도 ‘2020년 시무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시무식’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체’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공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2일 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열게 된 것을 하나의 의미로 부여하면 좋겠다”

라고 운을 뗀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로, 가장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공직자들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잠시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공직자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머슴’인 것 같다. 공직자의 자리는 결국 주인인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개선

면접수당 지급 기업에 가점 부여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지원혜택을 늘리는 등 올해부터 개선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온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창출, 노동환경 및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0.3%)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윈윈(Win-Win)하는 ‘면접수당 지급 문화’의 확대·정착 차원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선정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서울시 소유 건축물 564곳 1급 발암물질 ‘석면’ 위해 등급

608곳 조사 92.76% 위해성 등급 54곳 ‘중간’ 510곳 ‘낮음’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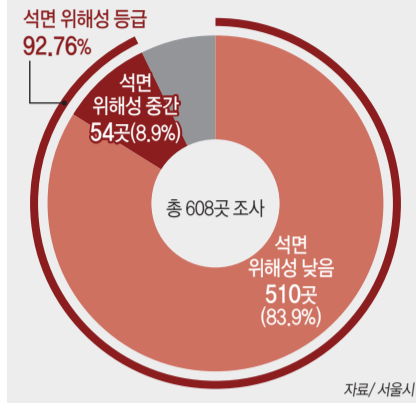
서울시 소유의 건축물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해성 등급을 받은 곳이 500군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608곳의 92.76%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석면이 함유된 시 소유의 건축물은 총 564개소로 이중 54곳이 석면 위해성 ‘중간’ 등급을, 510곳은 ‘낮음’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26개소는 무석면 건축물로 판명됐고 2곳은 철거, 16곳은 폐쇄됐다.

석면 위해성 ‘중간’ 등급이 매겨진 곳은 경동주차장(1개동), 관악구 수화통역센터(1개동), 관악산공원(1개동), 관악소방서(1개동), 구로소방서(1개동), 구로주차장(1개동), 길음역 환승주차장(1개동), 남부도로사업소(1개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2개동), 동대문소방서(1개동), 동부도로사업소(2개동), 동작경찰서(2개동), 무악동새마을금고(1개동), 상수도 수도자재관리센터(1개동), 서남환경(1개동) 등 총 54개소다.

시 소유 석면 함유 건축물을 유형별

서울시 소유 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



자료/서울시

로 살펴보면 업무 시설이 311곳으로 가장 많았다. 문화복지 시설(101개소), 물재생센터(76개소), 상수도 시설(27개소), 의료 시설(14개소), 빗물펌프장(13개소), 주거 시설(11개소), 체육 시설(9개소), 자원회수 시설(2개소)이 뒤를 이었다.

이에 시는 석면 조사 전문가를 통해 위해성을 평가하고 실내공기 중 석면비산농도를 관리하는 등 관련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총 912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이들 건물 564개소 가운데 연면적 500㎡ 이상, 석면자재 사용 면적 50㎡ 이상이거나 뽀칠재(분무재)를 사

용한 건물 204개소에서 석면 비산 농도를 측정한다.

시는 석면에 노출된 건물 중 위해성 정도가 ‘중간’ 등급 이상인 곳에 대해서는 석면을 제거하도록 관리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위해성 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서울시 실내환경 관리 시스템에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석면함유 건축물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공공건축물 전수 조사에서 시 소유 건축물 2007개소 중 절반이 넘는 1059개소(52.8%)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시는 지난 6년간 석면 사용 자제·제거 및 건물 철거·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석면이 나온 건축물 495개를 줄였다. 작년 말 기준 시 소유 석면 함유 건축물은 564개로 2013년 대비 46.74% 감소했다.

시는 오는 7일 석면조사 전문가업체 선정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의뢰하고 이달 21일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내달 4일까지 전문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5월 29일까지 석면함유 건축물의 위해성 평가와 석면비산농도측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재난사고 시 최대 1000만원

주민등록 있으면 자동 가입 자연재해·폭발·화재 등 보장

서울시는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

사고 등이다.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NH농협손해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이라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英 미술가·국내 작가 협업… 넓은 가압펌프장 예술 공간으로

(스티븐 퓨지)

서울시 벽화 작품 ‘용의 노래’ 선택

서울마포구에 자리한 문화비축기지의 넓은 가압펌프장이 예술 공간으로 되살아났다.

서울시는 문화비축기지 내 노후 가압펌프장에서 영국의 공공미술가 스티븐 퓨지와 국내 작가들이 협업해 만든 벽화 작품 ‘용의 노래’를 시민에게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가압펌프장은 문화비축기지의 진입 공간이면서 문화마당과 다섯 개의 탱크를 잇는 열린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영국 작가 스티븐 퓨지와 김민수, 이정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내 벽화 ‘용의 노래’.

/배효은 씨

재 등 한국 작가들이 함께 제작한 벽화 ‘용의 눈물’을 만나볼 수 있다.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 문화비축기지가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문화비축기지는 1970년대 석유비축기지를 재생해 만든 문화공원이다. /김현정 기자